

미래에셋3억만들기배당주식투자신탁1호(CLASS-A)

펀드 개요

투자 목적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고배당주 투자. 배당소득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고배당주의 유동성 부족을 보완키 위해 배당주바스켓(KODI)종목 편입하여 운용.

유형 주식형, 계약형, 추가형

설정일 2004년 09월 21일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에 편입)

환매지급 3시 이전 : 2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지급

3시 후 : 3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지급

신탁보수 총 보수 : 순자산 평잔의 연 2.5%

운용(연 0.6%), 보관(연 0.05%)

판매(연 1.82%), 사무(연 0.03%)

보관회사 한국외환은행

판매회사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서울증권, 메리츠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유화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대구은행, SC제일은행, 한국외환은행, 미래에셋생명, 대신증권

사무수탁 한국사무수탁

투자비중 주식 - 60% 이상 100% 이하

채권 등 - 0% 이상 40% 이하

기준가 1305.14 원 (2007년 06월 29일 기준)

결산내역 2기 06-09-20 (결산기준가:1103.83 원)

1기 05-09-20 (결산기준가:1645.22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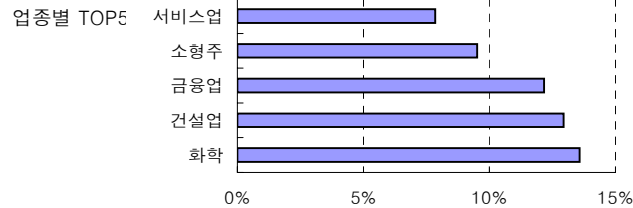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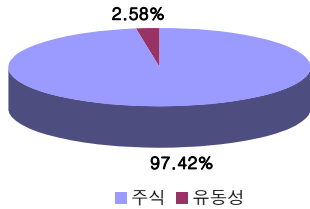
비교지수 KODI

펀드매니저 공동운용

순자산 2916 억원

자산구성 현황-(*아래의 비중은 전체자산 대비 비중입니다)

자산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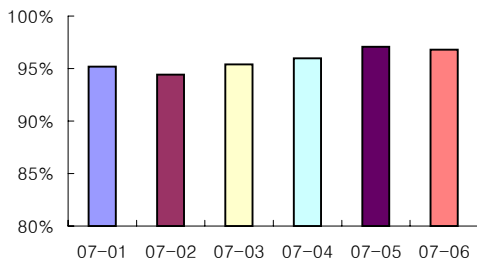


주요보유종목 (상위5종목)

종목명	금액(억)	비율
하나금융지주	243.2	8.26%
대림산업	175.6	5.97%
LG석유화학	172.6	5.87%
기아차	165.5	5.62%
금호타이어	139.8	4.75%

* 비율은 전체자산총액 대비 편입비율입니다.

투자자산 비중추이 (최근6월)



운용 성과

6월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대규모 차익실현에도 불구하고 기관 및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하였습니다. KOSPI 지수는 1800선을 돌파하면서 5.66%, KODI 지수는 3.66% 상승하였습니다. 글로벌 금리상승에 따른 유동성 축소 우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 글로벌 불안요인은 국내 증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펀드는 6월중 5.91% 상승하였으며 비교지수 대비 2.25% outperform하였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증권업종(+11.48%)이 자동차 및 M&A 이슈,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운수장비 업종(+8.08%)이 견조한 선박 수주 물량, 자동차 산업의 턴어라운드 기대 등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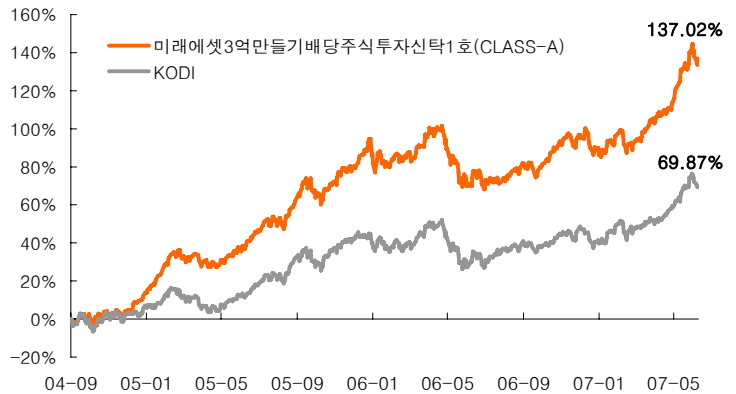
운용 실적

구분	최근 1개월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설정일 이후
펀드수익률	5.91%	22.59%	18.30%	39.58%	137.02%
비교지수	3.66%	14.87%	16.79%	30.55%	69.87%

* 비교지수 = KODI

* 상기 수익률은 결산분배금이 전액 재투자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입니다.

설정일 이후 수익률 추이



* 상기 수익률은 결산분배금이 전액 재투자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그래프입니다.

시장 분석 및 투자 계획

주식시장전망

글로벌 관점에서는 미국경제 불안요인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부실로 미국 소비를 떠받치던 주택가격 상승효과가 줄어들고 있으며 장기금리 상승추세로 유동성 축소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막연히 글로벌 유동성에 근거한 낙관론보다는 다변화된 세계 성장축에 근거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경기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생산과 설비투자는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소비지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주식시장 상승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시장 조정시 일정부분 하방경직성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월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하였던 은행, 통신, 자동차 등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접근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운용계획

당 펀드는 단기적인 시장 전망에 따른 자산 배분보다는 bottom-up 방식을 통해서 탁월한 내재 가치와 높은 시가 배당수익률을 보유하고 있는 개별 기업들의 발굴에 주력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기본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미래에셋자산운용(주)가 제작한 것이며, 수익증권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또한 판매 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아울러 본 상품은 실적배당 상품으로 유가증권 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에 귀속되며, 시장 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재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성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 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의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